

## &lt;올해 총장임기 만료 예정 대학&gt;

대학명	총장명	임기종료
대구가톨릭대	김정우	1월 5일
전남대	정병석	1월 12일
호원대	강희성	1월 14일
대전가톨릭대	김유정	1월 18일
가야대	이상희	1월 31일
경운대	한성욱	1월 31일
서강대	박종구	1월 31일
숭실대	황준성	1월 31일
영남대	서길수	1월 31일
차의과학대	이훈규	1월 31일
호남대	박상철	1월 31일
영산대	부구욱	2월 14일
꽃동네대	황선대	2월 28일
대전대	이종서	2월 28일
서울여자대	전혜정	2월 28일
순천향대	서교일	2월 28일
예수대	김금자	2월 28일
이화여자대	김혜숙	2월 28일
경남과학기술대	김남경	3월 5일
경인교육대	고대혁	4월 16일
루터대	권득칠	4월 30일
경기대	김인규	5월 31일
동명대	정홍섭	5월 31일
세종대	배덕효	7월 26일
전주대	이호인	8월 20일
유원대	채훈관	8월 25일
광신대	정규남	8월 31일
중부대	엄상현	8월 31일
한신대	연규홍	9월 20일
상명대	백웅기	9월 26일
홍익대	양우석	9월 29일
서울기독대	이강평	9월 30일
케이씨대	이길형	9월 30일
금오공과대	이상철	10월 19일
목포해양대	박성현	10월 19일
부산교육대	오세복	10월 19일
춘천교육대	이환기	10월 19일
한경대	임태희	10월 19일
대구예술대	허용	12월 14일
대구한의대	변창훈	12월 22일
한국항공대	이강웅	12월 31일

## &lt;총장 공석 대학&gt;

대학명	총장명 (직무대행)	임기시작
신경대	이서진	2017.02.01
장로회신학대	김운용	2020.10.01
성결대	한종길	
인천대	양운근	2020.07.29
덕성여대	김진우	2020.09.06
공주교육대	이범웅	2020.01.07
한국국제대	함동효	2019.07.20

## &lt;총장 연임 대학&gt;

대학명	총장명	임기
가톨릭대	원종철	4년 연임

## 대학에 부는 변화·혁신 바람... 새 리더맞이 분주

1~2월에만 11개 대학 새 총장 맞이  
서강대·숭실대 등 총장선출 완료  
국립 2곳·사립 5곳 총장자리 공석

2021년 전국 41개 대학이 차기 총장을 선출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월에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 대부분은 2020년 말 차기 총장 선출 작업에 돌입했다. 몇몇 대학은 새 총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했다. 새해를 맞이한 1월에만 11개 대학이 새 총장을 맞이할 계획이다.

## ◆ 41개 대학 총장 올해 임기 만료

국내 대학 중 올해 가장 처음 새 총장을 맞이한 대학은 대구가톨릭대다. 대구가톨릭대는 26대 총장인 김정우 총장이 5일 임기를 종료하고 오는 6일 신임 총장으로 우동기 전 대구시 교육감을 맞이한다.

우 신임 총장은 1990년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교단에 선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2대 영남대 총장,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8·9대 대구시 교육감을 역임한 인사다.

12일 정병석 전남대 총장 임기종료에 이어 ▲강희성 호원대 총장(1월 14일) ▲김유정 대전가톨릭대 총장(1월 18일)이 임기를 마친다. 1월 31일에만 ▲이상희 가야대 총장 ▲한성욱 경운대 총장 ▲박종구 서강대 총장 ▲황준성 숭실대 총장 ▲서길수 영남대 총장 ▲이훈규 차의과학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이 임기를 마친다.

이어 2월 28일 ▲부구욱 영산대 총장 ▲황선대 꽃동네대 총장 ▲이종서 대전대 총장 ▲전혜정 서울여자대 총장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 ▲김금자 예수대 총장 ▲김혜숙 이화여자대 총장이 임기를 마치게 되며, 3월에는 김남경 경남과학기술대 총장이, 4월에는 ▲고대혁 경인교육대 총장 ▲권득칠 루터대 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새로운 총장이 대학 중요 결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정홍섭 동명대 총장도 5월 31일 총장직을 마무리한다.

하반기에는 총 18개 대학에서 새 총장을 맞이한다. 서울 주요대학 중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7월 26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 총장이 새 리더십을 펼칠 전망이다. 이어 8월 이호인 전주대



심종혁 서강대 제16대 총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후보



장범식 숭실대 제15대 총장



김은미 이화여대 제17대 총장

총장과 채훈관 유원대 총장의 임기가 각각 20일과 25일 종료된다. 정규남 광신대 총장, 엄상현 중부대 총장은 31일 까지다.

4분기에는 13개 대학 총장 임기가 종료된다. 연규홍 한신대 총장이 9월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데 이어 ▲백웅기 상명대 총장 ▲양우석 상명대 총장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 ▲이길형 케이씨대 총장 ▲이상철 금오공과대 총장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 ▲오세복 부산교육대 총장 ▲이환기 춘천교육대 총장 ▲임태희 한경대 총장 ▲허용 대구예술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등이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이 임기를 마친다.

## ◆ 차기 총장 선임 잇따라

이처럼 올해 1~2월 중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에서는 차기 총장 선출 작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강대와 숭실대, 이화여자대 등도 새 총장 선임 과정을 모두 완료했다.

서강대 학교법인은 지난해 12월 서강대 제16대 총장으로 심종혁(65) 신학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신임 총장은 1974년 서강대에 입학해 수학,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입자물리학을 전공했다. 1992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기획처장, 총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같은 시기 숭실대 학교법인은 장범식 경영학부 교수를 제15대 총장으로 내정했다. 장 신임 총장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사부총장, 한국증권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화여대도 재선출 과정을 거쳐 김은미 국제학과 교수를 제17대 총장으

로 선임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김 신임 총장은 1997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특히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였던 전 임기에 이어 총장으로 연임되면서 총 8년간 대학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재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최근 서총장에 이어 김승우 경영부총장(전자정보공학과 교수)이 차기 총장으로 선출됐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김 신임 총장은 지난달 15일 실시된 총장 후보선출 선거에서 196명의 선출위원 중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85.9%인 152표의 지지를 얻었고, 지난달 16일 총장후보 선출 결과에 따라 김 교수를 재단인 학교법인 동은학원에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총장 후보는 1994년 3월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임용된 후 2005~2006년 기획처장, 2016~2019년 교육부 PRIME사업단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2013부터 현재 경영부총장을 맡고 있다.

## ◆ 연임 대학도... 총장 공석 대학 7곳

현 총장의 연임을 통해 대학 발전의 지속성을 꾀한 대학도 있다.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은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연임이 확정돼 오는 3월부터 4년간 다시 한 번 대학을 이끌게 됐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원 총장은 지난 임기동안 인공지능학과·의생명과학과·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신설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첨단 분야와 의생명 첨단 분야를 두 축으로 가톨릭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립대 2곳과 사립대 5곳 등 7개 대학은 현재 총장 자리를 비운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전 총장 임

기가 종료됐거나 사퇴를 한 상태지만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인 대학은 ▲신경대 ▲장로회신학대 ▲성결대 ▲인천대 ▲덕성여대 ▲공주교대 ▲한국국제대 등이다.

인천대는 현재 6개월 총장 공석이라 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차기 총장은 100% 구성원 평가를 통해 선출키로 하면서 전회위복 기회가 됐다. 이에 따라 인천대에는 사실상 첫 직선제 총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앞서 조동성 전 총장이 7월 임기를 종료한 뒤 인천대는 신임 총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내홍으로 이사회 추천 최종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기존 선거제도와 달리 총장추천위원회의 평가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구성원의 정책평가 점수로만 평가하기로 했다”라면서 “반영비율은 교수 70%, 직원 14%, 조교 6%, 학생 9%, 동문 1%”라고 설명했다.

총장 공석 대학 7곳 중 2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이름을 올리며 이종고를 치르고 있다. 신경대, 한국국제대는 지난해 8월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II 유형에 지정되면서 올해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한편, 현재 총장 공석인 장로회신학대는 지난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올랐지만 지난해 9월 평가에서 회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0년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

/뉴스